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더 몰입하라 -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윌리엄 윌버포스

추태화 (기학연 실행위원,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인간의 조건(conditio humana)

인간이 모든 역사를 통해 이루기 원했던 영원한 주제라면 무엇일까? 종교적으로는 죄와 구원,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해방, 영원한 평화,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편견이 없는 사회, 심리적으로는 공포와 불안이 해소된 안정, 용서와 화해, 개인적으로는 평안과 행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사안들이 정말 이뤄진다면 사람들은 이것이 지상천국이요, 유토피아의 실현이라고 열광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한 시도 인류의 염원에 응하는 시대를 살아오지 못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과 불의로 얼룩져 상처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태양의 나라에 근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을까.

도탈 이데올로기의 시대

W. 윌버포스(1759~1833)가 살던 때는 식민지 시대였다. 유럽의 권력은 야욕에 불타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새로 개척한 뱃길을 타고 식민지를 넓히려려고 경쟁에 열을 올렸다. 마치 현대의 자본주의가 무한경쟁에 빠져들듯 그렇게 제국주의가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여기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하나의 상품으로 보였다. 그들은 영혼이 없는 원숭이로 취급받았고, 노예라는 생산도구로 취급받았다. 그들은 유럽에 전리품처럼 끌려와 가정에 공장에 농장에 기계의 한 부품처럼 살아가게되었다.

영국 영토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세계화의 꿈을 가지고 있던 대영제국, 명예혁명, 청교도혁명을 자랑하던 국가였다. 세계 어느 나라와 바꾸지 않겠다는 자유의 영혼 세익스피어를 배출한 나라였다. 의회제도를 정착시키므로 앞선 민주주의를 세웠던 나라였다. 그런 영국이 노예제도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독교여! 기독교여!

더구나 영국은 기독교국가였다. 당시 가톨릭, 성공회, 개신교로 구분되어있던 영국은 온 국민이 기독교인이라 할 정도로 기독교가 융성했었다. 교파는 달랐지만 교회는 신도들로 넘쳐났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대세요 삶이요 문화였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광장에서나 골목에서나 교회 침탑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교권은

하늘에 닿아 교회지도자들은 귀족처럼 대우받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평민들의 심령에 영향을 미쳤다. 콘스탄틴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므로 교회의 권세가 막강해진 모습과 유사했다. 신앙과 삶의 궤리도 그 시대를 흡사하게 닮아간 것이 문제였다. 노예제도는 인류의 어둔 역사를 보여준다. 노예제도로 인해 유럽은 어느 순간도 속죄를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당시에 수많은 정치인들, 귀족들은 노예제도를 적극 찬성했다. 그들 모두가 기독교인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가 일상화되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예제도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에 대한 시금석이었다. 그 사람들이 속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정의와 인권에 대한 척도였다.

월버포스를 찾아오신 하나님

월버포스는 지병이 있었다. 때로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에게 평안과 힘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다. 그는 숲을 거닐며 작은 꽃, 이름모를 벌레에게도 감동한다.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세계에 경탄한다. 그 절대 고요 가운데 월버포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낀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 같다.”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노예제도를 지지했다. 영국을 부강하게 하는 무역이자 산업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노예산업을 포기하면 다른 열강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이론을 내세웠다. 월버포스는 매국노로 몰릴 지경이었다. 의회에서도 동지는 몇 명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싸운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형국이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보였다.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월버포스가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신앙이었다. 복음의 힘이였다.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에게 임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월버포스에게도 임했던 것이다.

믿음과 행함

월버포스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온몸을 불사른다. 루터나 칼빈이 시대를 지배했던 자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월버포스는 동지들을 모으고,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으며 전국을 누빈다. 건강이 악화되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다. 노예선장이었던 뉴튼의 고백은 그에게 힘이 되었다. 그의 회심은 월버포스에게 또 하나의 빛이 되었다. 뉴튼은 불의했던 삶을 회개하면서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법에 배치된다고 확증해주었다(찬송가에 실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은 뉴튼이 작시자이다.)

월버포스는 드디어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어낸다. 그것은 기독교 국가 영국이 비로써 공의로운 나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예제도 폐지는 인류 역사에 드리운 또 하나의 죄악과 범죄의 사슬이 끊어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데는 입으로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뒤 온몸을 바칠 때 가능한 일이다.

월버포스는 우리 시대가 배우고 또 배워야 할 멘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시대를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멘토이다.